

고객강화·브랜드 육성·윤리경영으로 경기침체 파고 넘는다

가구업계, 경영전략

가구업계가 주택 경기 등 전방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고객 강화, ESG를 포함한 윤리경영,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올해 파고를 뛰어 넘는다.

13일 각사에 따르면 한샘은 올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과 '선망받는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샘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연결)은 1조418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649억원)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손실(-96억원)에서 지난해 흑자(27억원)로 돌아섰다.

김유진 한샘 대표는 신년을 맞아 독자 전환을 이뤄낸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올해를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 변수들을 탓하기에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기회들이 너무 많다"며 "힘을 합쳐 준비한 전략들을 하나씩 펼쳐 나간다면 더욱 선망받는 한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기준으로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리바트에 '종합가구사 1위' 자리를 내줬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3분기까지 1조4559억원의 매출(연결)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리바트는 특히 빌



김유진 한샘 대표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



안정호 시몬스 대표

한샘 "준비한 전략, 펼쳐 나가야" 3분기 영업이익 27억 '흑자 전환'

신세계까사 마테라소 매출 35%↑ 오프라인 매장 4~5곳 추가 계획

에이스침대 '기업윤리' 핵심 가치로 임직원에 투명·공정활동 등 독려

시몬스 "바나둠, 반영구적 사용 세상에 없던 기술로 100년 선도"

트인을 중심으로 한 B2B가구, 법인·자재와 해외가설공사 등 B2B사업 부문에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당시 1조237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리바트는 1조3846억(2020년)→1조4066억(2021년)→1조4957억(2022년)→1조5857억원(2023년)

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 41.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까사는 올해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테라소는 신세계까사가 2021년 매트리스 라인업을 전면 재정비하면서 선보인 브랜드로, 2023년 7월 매트리스 브랜드에서 '수면 전문 브랜드'로 영역을 넓혔다.

특히 마테라소는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고속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는 전년 대비 50% 매출 신장이 목표다.

신세계까사 관계자는 "올해 전국 주요 지역에 마테라소 오프라인 독립 매장을 4~5곳 추가로 열 계획"이라며 "상

반기 중 고기능성 매트리스 컬렉션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침대뿐만 아니라 협탁, 베드벤치, 수면 유도 등 소품류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세계까사는 ㈜신세계가 9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정유경 회장이 18.56%로 대주주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는 2025년을 맞아 기업윤리를 핵심가치로 삼고, 투명·공정·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임직원들에게 독려했다.

안 대표는 "윤리경영은 더 이상 기업 경영의 변수가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에이스침대는 윤리강령 제정·시행, 사이버 신문과 설치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현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을 위해 예술적이고 편안한 환경(Artistic and Comfortable Environment)'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시몬스는 '뷰티레스트'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지난해 9월 경기 이전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나둠 포켓프링을 적용한 뷰티레스트 신제품을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둠 포켓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여 년 전 시몬스의 품질 혁신으로 전 세계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했듯, 이전 바나둠 포켓프링이라는 '세상에 없던 기술'로 또 다른 100년을 이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몬스는 올해 비건매트리스 브랜드 'N32'에도 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N32에서 'N'은 New를 말한다. 32는 하루 8시간의 수면이 24시간을 바꾼다는 의미로, 8에 24를 더해 숫자를 만들었다.

N32 플래그십 스토어는 지난해 서울 논현, 경기 기흥, 부산 등에 추가로 열며 현재 전국에 20개 매장을 두고 있다. 올해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고객들과 접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연간 74억 지원' 창업중심대학 2곳 선정

중기부, 비수도권 지역 대학 대상 20일 예비신청, 내달 7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창업중심대학 2곳을 새로 모집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74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중기부는 현재 권역별 총 9개 대학

(한양대·성균관대·호서대·한남대·전북대·강원대·대구대·부산대·경상국립대)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이를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

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역할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다.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내달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대·중기 상생일자리' 참여사 모집

청년 구직자 직무교육·취업 연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단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8개 대·중견기업 사업단을 모집해 6352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3450명이 2108개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단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인 수요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협력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과정 개발 등 우수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와 청년 구직자 모집부터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중진공은 선정된 사업단에 교육 과정 개발비, 임차료 등 운영비를 제공하고, 사업단은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희망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과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KCC 두산건설과 손잡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KCC가 두산건설과 손잡고 아파트 컬러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해 나선다.

KCC는 두산건설과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MOU를 통해 KCC는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아파트 내외벽,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의 컬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전용 색상집도 제작해 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KCC 맹희재 상무, 두산건설 신종범 상무, KCC 안일진 상무(왼쪽부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또 KCC는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 등 5가지 콘셉트에 KCC

의 컬러감을 녹여내어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KCC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시인성과 명확성이 높은 색채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락앤락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 선보여

락앤락이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를 출시했다. 13일 락앤락에 따르면 '메트로 밀폐머그 텀블러'는 앞서 출시한 메트로 머그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기능은 더욱 향상했다.

텀블러 본체와 캡 모두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수구도 넓어 손세척이 쉽다. 또한 고온에서 세척해도 형태가 변하거나 보온·보냉 기능이 저하될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오피스에 특화한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능도 눈길을 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머그컵 모양의 텀블러로, 사무실 등 실내에서 사용하기 편하고, 클립형 마개 디자인을 적용해 한 손으로도 열고 마시기 쉽다.

기존 '메트로 머그'의 특징점도 그대로 살렸다. 이중 진공 구조로 설계되어 10°C 기준 최대 19시간 보온, 50°C 기준 최대 4시간 보온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